

무주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1마을 1담당 공무원 출장으로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사랑상품권 전달

무주군은 22일과 23일 양일 간 제2차 재난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을담당 공무원 363명이 6개 읍·면 150개 마을(행정리)을 출장 중으로 이장들과 각 가정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수령증을 받은 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집을 비웠거나 개인 사정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면 받을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수해로 꺼진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



이다”고 전했다.

이어 “24억여 원에 달하는 재원은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 취소 경비를 비롯해 공무원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며,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였고 그 경비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줘 가계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 만큼 의미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 성별 등에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을 담은 개별 봉투에는 지원 취지와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당부 사항을 함께 담았다.

무주군은 지난 5월에도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제1차 재난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민들은 “군에서도 재정 여건상 재난기본소득을 또 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식구마다 받으니까 네 식구만 돼도 차수 당 40만 원, 어려운 가계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우호협력국 몽골 사마르솜에 중고PC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돕기 위해

장수군이 우호협력도시인 몽골 사마르솜의 교육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중고PC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몽골 사마르솜의 유치원과 학교 등 대부분 교육 시설에 컴퓨터가 없거나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장수군은 일반 평

정 업무 수행 등 성능이 우수한 교재용 PC 18대를 수리해 몽골 사마르솜에 기증하기로 했다.

장수군과 몽골 사마르솜은 지난 2019년 6월 우호협력교류를 체결한 후 문화교류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마르솜의 정보화 환경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장수군과 협력이 더욱 견고히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마르솜의 경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장수군의 컴퓨터 기증을 통해 사마르솜의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보건의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온라인교육

진안군보건의료(소장 이임욱)는 22일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 확산으로 집합교육을 실시가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시행하게 됐다.

교육생들은 밴드에 가입한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권기욱 호원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검거자제와 근력운동 및 어르신 실내 운동법’ 등을 주제로 실시했으며 영상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선정

무주군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사동을 걸었다. 무주군은 산업통상지원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처음 응모해 공개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총사업비 30억8,000만원(국비 15억3,000만원, 군비 11억3,000만원, 자담 4억2,000만원)을 들여 수요조사가 완료된 무주읍을 대상으로 278개소(태양광 217, 태양열 10, 지열 51)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시설·상업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해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

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 1월 사업에 착수, 2021년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녹색도시로써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무주군은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5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개평가와 현장평가에서 그린뉴딜 선도정책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육성에 대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민간 부문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해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5개 분야 5명… 내달 12일 시상

진안군은 22일 향토의 영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진안군 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장 이재명(66), 공익장 오영근(66), 산업근로장 안현식(63), 애향장 김용수(66), 체육장 김희승(68)씨 등 5개 분야 5명으로 진안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장에 선정된 이재명 씨는 진안문화원이 창립된 이래 28여년 동안 진안의 지역문화 개발 연구 조사 및 다양한 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문화원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홍삼축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리더십으로 진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익장에 선정된 오영근 씨는 17년간 성수면 가수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는 존경받는 지역 리더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본인과 약속 실천으로 매년 사랑의 쌀 기탁, 어르신 위안잔치 물심양면 지원 등 지역개발 동참 및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안현식 씨는 인삼재배법 및 홍삼제조기술의 전수 등 농업인의 역량 발휘 기회 제공, 홍삼가공업을 하면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삼을 연간 8억여원을 수매, 타 지역으로 원삼 유통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단합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애향심 발현과 지역사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산업근로장에 선정됐다.



문화장 이재명



공익장 오영근



산업근로장 안현식



애향장 김용수



체육장 김희승

애향장 김용수 씨는 재부산호남향우회 창립멤버로 현재는 상임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재부산진안군향우회 회원 확대를 위해 체육대회 및 출향행사 등 진안군향우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으며, 진안시장장학금 기부 최초 제안 및 반영과 전북 시군향우회를 통한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홍보해 고향 사랑과 향토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애향장에 선정됐다.

체육장 김희승 씨는 30여년간의 교육공직 경험과 체육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진안군 체육회에 약 25년간 몸담아오면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특히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공헌, 진안군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이번 군민의 장 시상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0월 12일 군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방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속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무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눔과 돌봄 활동을 펼친다.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불우소외계층 396세대, 사회복지시설 18곳이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실과소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21일부터 각 읍·면의 무의탁 독거노인 25세대를 방문해 위로·격려하고 마을담당공무원 353명이 독거노인과 수재민,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생활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대상별 필요 욕구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가정 9,118세대를 위한 20여억 원의 공적급여(생계급여, 아동급여,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특별구호비, 한 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등)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방문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서 다들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안군은 22일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64만원(3,841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팔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